

[사회]

해킹 방지 이메일 접속 차단 광주·전남 지자체 업무 혼선

중앙정부에서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들의 상용 이메일 사이트 접속이 일일 기해 일제히 차단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들도 업무 혼선을 빚었다.

광주시·전남도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이메일 발송과정에 중요 국가정보의 유출이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다음, 네이버, 네이버, 야후 등 국내·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메일접속을 이날 차단했다.

이와 함께 'ID@korea.kr' 형식으로 제공되는 공직자 통합 이메일이나 보안기능을 대폭 강화한 'ID@기관명.go.kr'을 사용토록 일괄 지시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자체 메일서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들은 전송 지연 등의 불편을 겪어야 했다. 현재 광주시는 메일서버를 보유하고 있지만 5개 구청 가운데 서구청만 서버를 운

영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메일서버가 없고, 도내 10여개 지자체만이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홍보업무 등 대응량 메일을 발송하는 담당자들의 불편이 컸으며, 전남의 일선 시·군에서는 행정 생산량과 관련 없는 청사 내 컴퓨터에서 업무를 보거나 외장하드에 자료를 옮겨 담아 인근 PC방을 다녀오는 경우도 있었다.

전남 A 시청 공무원은 "통합 이메일을 불편해 하는 공무원들이 외부 컴퓨터를 사용함에 따라 보안성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 공무원들은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다. 광주시 B 구청 공무원은 "인터넷 강국이라고 우세를 떨면서 포털 이메일 사용을 차단하는 것은 불만을 줘야 했다. 현재 광주시는 메일서버를 보유하고 있지만 5개 구청 가운데 서구청만 서버를 운

르포 - '울돌목 거북배' 독도에 가다



'울돌목 거북배'를 타고 1일 오전 국토의 동쪽 끝 독도에 도착한 전남도 대표단이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마친 뒤 태극기를 흔들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독도=위정기자 jwji@kwangju.co.kr

파도·바람과 싸우며 590km 바닷길 내달려 충무공 호국정신 독도서 재현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기 저기서 '우~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거대한 산봉우리 2개가 우뚝 선 절경은 보는 사람의 눈과 마음을 압도했다. 해발 168m의 뾰족한 서도 수비대가 있는 동도는 시퍼런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움으로 눈을 시리게했다.

동도와 서도 사이 바다에는 솟대바위, 독림바위, 권총바위, 가재바위 등이 솟아있었다. 마치 국토의 동쪽 끝 독도를 지키는 병사를 연상시켰다.

건군(建軍) 60주년 국군의 날인 1일 한반도 동쪽 끝 우리 땅 독도에서는 또 하나의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일본의 야욕을 응징하지 않겠다는 이순신 장군의 기상이 담긴 '울돌목 거북배'(선장 김경식)가 이날 오전 8시 35분 독도 동도 선착장에 도착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을 대패한 명량해전 전적지인 해남 울돌목을 떠난 '거북배'는 남해와 동해를 거쳐 합남 파도와 바람과 싸우며 590km 바닷길을 내달렸다. 항해시간만 25시간이었다. 당초 지난달 30일 독도에 접안할 예정이었으나 파도가 심해 하루

늦게 도착한 것이다.

'삼도 수군통제사 이순신'이라는 깃발을 내건 '거북배'의 등장은 이순신 장군의 기상이 400여년만에 되살아난 듯했다.

독도 항해 이벤트를 기획한 전남개발공사 이동진 사장을 비롯한 전남도 대표단 100여명은 감격 속에 독도 땅을 밟은 뒤 독도수호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순신 장군 복장을 한 배우 박희수(25)씨는 선착장에서 "일본은 국 동쪽 땅끝"이라고 적힌 태극 모형을 원형 기념비를 보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울었다"고 말했다.

'거북배'는 전남도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명량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남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모두 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남개발공사에 의뢰해 건조한 거북선형 유람선이다. 총 길이 49m, 폭 10m의 368t급인 이 배의 승선 인원은 모두 170명이다.

관객이 행사 도중 "이 지구상에 다케시마는 없다. 독도만 있을 뿐"이라고 외치자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또 "탑내차 마라! 우리 땅 독도" '이마에는 독도수호' 가슴에는 독도 '사랑'이라고 적힌 퍼켓도 함께가 흔들었다.

독도 주민 김성도(68)씨는 "독도에 접안할 수 있는 날은 연중 45일 내외다. 날이 좋더라도 파도가 높으면 접안하지 못하고 선외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거북배"가 독도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하늘이 문을 열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 나상문 과장은 "독도 선착장에 설치된 '대한민국 동쪽 땅끝'이라고 적힌 태극 모형의 원형 기념비를 보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울었다"고 말했다.

'거북배'는 전남도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명량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남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모두 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남개발공사에 의뢰해 건조한 거북선형 유람선이다. 총 길이 49m, 폭 10m의 368t급인 이 배의 승선 인원은 모두 170명이다.

조선대 대책위 오늘 상경 투쟁 임시이사 파견 중단·사학분쟁위장 사퇴 촉구

법인 정상화를 추진 중인 조선대는 최근 교과부가 임시이사 체제 유지로 계획을 급진화한 것과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열리는 2일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조선대, 세종대, 삼지대, 광운대 등 정상화 추진 4개 대학 구성원으로 이뤄진 '부패재단 복구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철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사학분쟁조정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 음모 중단 및 정칙회 사학분쟁조정위장 사퇴를 요구할 계획

이다.

공대위는 결의대회에 앞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사학분쟁조정위에서 정상화 결의가 된 4개 대학에 대해 교과부가 임시이사 후보를 추천받은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교과부는 대학을 혼란으로 몰아가지 말고 당장 임시이사 파견 음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칙회 위원장은 정상화 과정을 지연시켜 구제단을 돕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정 위원장의 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자녀 서울대 보낸 워킹맘' 매년 늘어

자녀를 서울대에 보낸 어머니들 중 '워킹맘'(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키우는 여성)의 비율이 매년 늘어나는 반면 전업 주부의 비율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서울대가 한나라당 이해규 의원에 제출한 '2008년도 입학생 부모 직업 분포'에 따르면 올해 자녀가 서울대에 입학한 어머니 2천434명 가운데 워킹맘은 954명(39.2%)으로 2006년 37.4%, 2007년 38.2%에 이

어 증가세를 계속 유지했다.

반면 올해 서울대 입학생들의 어머니 중 전업주부는 1천450명(59.6%)으로, 2006년 61.9%, 2007년 61.7%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워킹맘 중에서는 특히 교직이나 사무원에 재직한 대학생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이 기간 교직 종사자의 비율은 11.3%→12.6%→13.2%로 늘어났고 사무직 종사자 비율은 4.6%→4.9%→5.8%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아침 안개' 주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광주	맑음	13~27℃
전남	맑음	14~25℃
전북	맑음	18~25℃
충청	맑음	13~27℃
경상	맑음	13~28℃
강원	맑음	11~27℃
제주	맑음	11~27℃
서울	맑음	11~27℃
부산	맑음	12~27℃
대구	맑음	11~28℃
인천	맑음	12~26℃
대전	맑음	12~26℃
전주	맑음	11~27℃
울릉도	맑음	9~27℃
독도	맑음	18~22℃

서울남부
안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0.5m
안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안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안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03:27 썰물 < 08:39
목포 밀물 < 16:04 썰물 < 21:08
여수 밀물 < 10:32 썰물 < 03:56
여수 밀물 < 22:26 썰물 < 16:31

▲해돋이 06:28 ▲해질 18:15 ▲달돋음 09:11 ▲달질 19:28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날씨						
최저/최고	13/26	13/26	15/23	15/23	12/24	13/25

이젠 9월도 여름? 평균 최고 기온 27.1도... 광주는 28.7도

올해 9월의 전국 평균 최고기온이 27.1도를 기록, 사실상 여름 날씨를 보였다. 광주지역의 9월 평균 최고기온은 28.7도로 전국 평균보다 1.6도가 높았다. 또 9월 전국의 강수량이 평년의 42% 수준으로 나타나 가뭄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60개 지점에서 관측한 기상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9월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27.1도로 평년에 비해 1.4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27.3도)과 1975년(27.2도)에 이어 역대 3위의 기

록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철로 분류되고 있는 올해 6~8월의 평균 최고기온(28.3도)에 1.2도 못 미치는 것으로 9월에도 무더위가 맹위를 떨쳤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도 무더운 9월을 보냈다. 광주가 첫 최고 평균기온이 28.7도를 기록했으며, 순천 28.3도, 해남 27.9도, 연도 27.9도, 고흥 27.9도를 나타내는 등 대부분 전국 평균 최고기온을 웃돌았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광주·전남 청소년 범죄

3년간 지속적 증가

광주·전남 청소년 범죄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7월 광주지방청 개청 이후)의 청소년 범죄건수는 4천건으로 전남 4천46건과 합할 경우 8천46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 건수 11만5천654건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5년 5천311건 ▲2006년 6천345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통계도 광주 2천857건, 전남 2천883건 등 총 5천740건으로,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추세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청소년 범죄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2만2천228건)로 전체의 24.4%를 차지했고, 그 뒤를 경기(2만2천989건·19.9%), 인천(8576건·7.4%) 등이 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동산 경제 권선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대표이사 010-7570-7525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권선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을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 명도 정확한 권리분석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하며 실시간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구분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 권선시설/현물	송정동	대110/2190	4억5천	3억1천	4층전용
	쌍문동	대63/2148	4억2천	4층전용	
	대인동	대63/2292	4억2천	1억9천	3층전용
	권선동	대104/2263	7억	3억1천	5층건물
	공동	대371/21852	90억	27억	7층건물
	쌍문동	대148/2177	8억8천	6억2천	3층건물
	원곡동	대177/2585	71억	4억8천	5층건물
	우산동	대154/2272	2억4천	1억8천	3층건물
	쌍일동	대137/2416	14억	9억8천	5층건물
	양동동	대137/2193	41억	28억	4층건물
금호동	대104/2234	79억2천	5억1천	3층건물	
영랑동	대1181/2346	79억2천	2억2천	5층건물	
▶ 속박시설/근린상가					
신촌동	대106/2425	129억	49억	6층오피스	
봉동동	대683/22263	99억	10층오피스		
회현동	대100/2683	5억5천	3억	4층오피스	
북대동	대108/2259	8억2천	4억5천	5층오피스	
회현동	대1082/2389	17억	9억7천	4층오피스	
나주승동	대83/2299	5억9천	3억2천	6층오피스	
나주승동	대82/2326	15억4천	6억8천	4층오피스	
지평동	전용48.8	2억	1억3천	4층상가	
중흥동	전용27.8	5억1천	2억8천	10층상가	
실곡동	전용19	11억	5억	7층상가	
칠곡동	전용22.8	1억2천	4300만	2층상가	
지평동	전용17.2	1억7천	9600만	5층상가	
영랑동	전용15.8	7000만		4층상가	
▶ 금주동					
고급빌라	전용128.04m2	대208,2481m2	대1980,22994	대156,71002	대588,21869m2
건평기2억7500만	건평기4억2800만	건평기16억3800만	건평기14억4500만	건평기18억3100만	건평기24억4800만
최저가1억5400만	최저가2억0800만	최저가14억4500만	최저가12억3100만	최저가14억4800만	최저가14억4800만

해령법률경매

T:062)225-2665 H,P:011-605-7777 위치:법원정문앞

지역	소재지	면적	토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상가주거, 상가건물, 근린시설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201/441	988만	1억8천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05/198	987/78	528만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12/218	112/218	987/78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5/24	15/24	987/78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345/775	345/775	987/78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217/489	217/489	987/78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11/280	111/280	987/78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55/292	155/292	987/78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98/148	98/148	987/78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68/238	168/238	987/78
아파트 (고급주택, 최고급전문가 직영사업)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1/95	64/33	198만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0/9	31/59	987/78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1/7	54/84	198만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0/13	34/84	198만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1/7	34/82	198만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9/30	49/84	198만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0/9	41/78	198만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0/9	80/165	198만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1/7	14/31	198만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1/7	33/59	198만
주택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1/95	64/33	198만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0/9	31/59	987/78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1/7	54/84	198만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0/13	34/84	198만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1/7	34/82	198만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9/30	49/84	198만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0/9	41/78	198만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0/9	80/165	198만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1/7	14/31	198만
	서울	유곡동	국립대입구	11/7	33/59	198만